

수요일

이끄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3:17-18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묵상

단체로 해외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쳐다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축물이나 그곳 사람들, 예술작품이나 아름다운 자연 등 각자의 관심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것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열심히 쳐다 보는것이 있습니다. 가이드가 들고 있는 깃발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길을 잃으면 큰일이다 싶으니까요.

한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본 적이 없는 길, 무엇보다 방향을 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낮의 더위와 밤중의 추위도 견디기 어려웠을 터이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정제불명의 부족이 공격할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두고서,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길을 나서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

가지나 앓을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름 길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끄셨습니다. 멀리서도 대변 눈에 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방향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낮의 무더위와 한밤의 추위도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출발과 정지를 알리는 신호등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 있어도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해야 했습니다. 모처럼 편안한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꾸로 구름이 멈추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건 멈춰야 했습니다. 이틀이든, 한 달이든, 일년이든 마찬가지로였습니다.(민 9:22)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땅이라 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백성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뿐아니라 속도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는 배의 방향을 정하는 키와, 속도를 정하는 노와, 배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닻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이 광야와 같을수록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PRAYER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을 주셔서 구름이 멈춰서면 멈추게 하시고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하소서. 앞서거나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 묵상

지극히 단순함이 빚어 내는 심오함 / 아르보 페르트의 〈거울 속의 거울〉

비르투오소(Virtuoso)란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한 지식이나 뛰어난 기능으로 일가를 이룬 거장을 지칭합니다. 주로 예술 분야의 음악가에게 붙여주는데, 같은 음악가라도 대부분 기악연주자를 가리킵니다. 반면 작곡가에게는 이 칭호가 인색하게 쓰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이로운 연주기법이 요구되는 작품을 만듦으로 비르투오소를 탄생시켰고, 또 그럼으로써 음악은 발전해왔습니다. 작곡가는 음악을 생산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는 그것을 판매하고, 대중은 그것을 소비합니다. 대중이 원하는 상품으로서의 음악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여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혁신의 정신으로 문예사조를 선도하는 음악일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음악이든, 세속음악이든 말입니다. 그러한 음악들이 대중이 가지고 있는 감성의 폭과 영혼의 이상을 넓히는 촉진제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과거 바로크 시대나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처럼 대중에게 열렬히 환영받는 작곡가가 흔치 않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음악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대중은 오랫동안 그런 작곡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출현한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Arvo Part, 1935-)는 가문의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북유럽 에스토니아 출신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과거의음악으로 회귀해 인간 내면의 순수성을 노래하는 음악가입니다. 이를테면 그레고리안 성가나 러시아 정교회 음악, 또 르네상스 다성 음악의 재해석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의 음악적 특징은 최소의 소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영적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데 있습니다. 단순함이 빚어내는 심오함은 아름다움을 넘어 감상자를 경건의 극치로 인도합니다. 〈거울 속의 거울〉 (Spiegel im Spiegel)이 대표작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어 ‘침묵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한적한 곳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에 비어 있는 이 ‘침묵의 날’을 저에게 펼쳐준다면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맘속의 거울에 비친 이 , 또 거울 속의 거울에 비친 이는 온통 '나'뿐입니다. 원컨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크게 비치게 하옵소서.'